

◆ 제1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안내

1. 출품자격

- 1) 출품자 자격 :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원이며, 한우협회 회원(정회원 중 회비미납자는 출품 제한)
- 2) 출품우 자격
 - 가. 개체식별이 확실한 소 : 바코드 이표가 장착되어 있는 혈통등록우
 - 나. 품 종 : 거세우
 - 다. 생년월일 : 2006년 4월 1일~5월 31일생
 - 라. 생 산 지 : 출품농가 시, 군에서 생산된 등록우로 한정(12회 대회부터 적용)

2. 농가당 입식두수 및 출품두수

- 1) 입식 및 출품두수 : 3두 입식후 최종 2두만 출품(12회 대회 5두 입식, 2두 출품)
- 2) 입식 조사시 개체별 사진촬영 및 대회 출품귀표 장착, 모근 채취

3. 참가신청

- 1) 출품신청 : 2007년1월1일~3월10일한(우편송부시 3월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본회 홈페이지 <http://www.aiak.or.kr> 한우개량부 게시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 출품회비 : 60만원
- 3) 회비납부기한 : 2007년 3월 10일(기한내 미 입금시 자동 출품취소)
- 4) 회비납부 계좌번호 : 237020-56-074625(농협) 예금주 : 우영목(입금시 반드시 참가신청자명으로 입금 요망)

4. 평가기준

- 1) 제10회 대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도체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기준 작성
- 2) 출하체중 : 공판장 도착체중이 600kg 이상(미달시 평가는 하되 시상에서 제외)

5. 출품우 입식조사 및 참여농가수

- 1) 입식조사 : 2007년 5월까지 완료
- 2) 참여농가수 확정(참가신청농가 중 회비미납농가는 자동 제외)
 - 가. 12회 대회부터는 참여농가수를 100개조로 제한하여 접수
 - 나. 대회 출품 신청후 출하포기시 1회(차기대회)에 한하여 출품 제한
- 3) 출품우 조사
 - 가. 발육조사 : 2008년 4월~5월(제11회 대회 입식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문의 : ☎ 02) 588-9301~5 (사)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제1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 신청서

출품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소속 브랜드명		
농장명 (반드시 기재)				
자택주소				
농장주소				
연락처	집		핸드폰 (담당자명)	
	농장 (사무실)		팩스	

사육현황

총 사육두수				밀소 구입 방법				
거세	수	암	계	자가 생산	우시장 구입	축협 알선	경매 구입	기타

보내실 곳

- 우편이용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우:137-871)
- 팩스이용 : 02-522-0171(팩스 송부 후 02-588-9301~5 접수 확인 요망)
- 홈페이지 : <http://www.aiak.or.kr> 한우개량부 게시판
- 신청마감 : 2007년 3월 10일까지 본회 도착분에 한함

(주)송강GLC 신사옥으로 이전

그동안 저희 (주)송강GLC를 애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송강GLC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객의 편이 되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세계적인 표준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007년에는 당사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사세의 확장에 따라 신사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 테크노파크 비즈센터 415호

전화 : 031-776-0780 (대)

팩스 : 031-776-0782

홈페이지 : www.pigland.com

E-MAIL : pigland58@naver.com



고객 불만 신고센터

직통전화번호

031-776-0783 / 011-314-3226 / 011-1718-3081

(주)송강GLC 메티스 자회사 신설

- ◆(주)송강GLC는 날로 늘어나는 고객들의 해피콜 서비스 강화 및 A/S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신설하였습니다.

회사명 : 메티스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 테크노파크 비즈센터 B114호

전 화 : 031-776-0783

팩 스 : 031-776-2530

협회장동정



- ▶1월 5일 : “2007년 농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 농협중앙회
- ▶1월 10일 : “2007 축산인신년교례회” 참석 - 한국마사회
- ▶1월 11일 : “창립70주년

제2창업 서울우유 비전선포식” - 올림픽공원(컨벤션센터)

- ▶1월 23일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ATV늘푸른농업방송-임원 이.취임식 개최 - AT센터
- ▶1월 25일 : 한미FTA에 대응한 “관세할당(TRQ)”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제도의 개서노가 활용방안 - AT센터

2007년 신년사

본회 조병대 회장은 2007년을 여는 신년사에서 큰 포부를 갖고 열심히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하고 월남전 당시 미국의 유명한 군사무기제조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라스사 중역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부채질하는 검소한 모습과 성실함에 깊은 감동을 받고 무기를 지원해 주었다는



실화를 이야기하며 축산이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축종별 당부를 통해 직원들의 개량과 육종의 의미를 깨닫고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우는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종축 보존의 위기감을 갖고 2년 이내에 모든 등록이 의무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젓소는 점차 사육두수가 줄어들어 내년엔 5천~6천두 가량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는데 등록, 검정사업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젓소 종모우의 수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낙농의 기본인 착유를 통한 우유 생산을 가공산업으로 점차 넓혀 나가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개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돈은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는 혈통사업과 연계된 균일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병대 회장의 신년사에 앞서 신입사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신입사원에 박귀룡씨를 채용하여 유우개량부 검정팀에 발령하였으며 한우개량부 구양모 팀원(검정팀)과 신승규 팀원(등록팀) 및 종돈개량부 오종열 팀원(등록팀)과 송규봉 팀원(등록팀)을 각각 과장대리로 승진 발령하였다. 또한 윤계정씨를 한우개량부 등록팀에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였다.

2007년 2월1일부터 한우정액등급별

씨수수 조정

“한우 보증씨수소가 신규로 선발됨에 따라 2007년 2월 1일부터 새로이 조정된 씨수수 정액이 공급”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구립 19일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충남천안소재)에서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우 보증씨수수 10두를 신규로 선발하였다.

축산연구소는 20두의 보증씨수수 후보 중에서 자신들의 자료와 후대들의 도체성적 등 검정자료를 근거로 2006년 12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전능력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능력이 가장 우수한 10두(KPN506, 507, 517, 525, 544, 549, 565, 588, 592, 600)의 보증씨수소를 최종 선발하게 됐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씨수수 정액은 한우정액 등급 재조정을 거쳐 2007년 2월1일부터 농협젓소개량부에서 전국에 보급,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씨수수 선발과 관련하여 축산연구소 김시동 연구사는 “최근 일부 농가들과 브랜드경영체에서 순위만을 고려한 특정정액 선호에 의한 쓸림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액선택에 대한 고려사항을 농가에 당부했다.

또한 특정 씨수소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나

의 보증씨수소를 모든 암소 교배에 사용하거나 정액을 다량 확보해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전능력평가(6개월 단위 실시)결과 새로 선발된 씨수소의 능력변화 추이를 보아가면서 보증씨수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제당(주) 사료BU 조직변경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는 한미 FTA협상과 미산쇠고기 수입개개, 환경규제 강화, 각종 질병 만연과 국제적인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예상되는 정해년 새해에 2007년 “First Choice & Success”로 “2007년 고객의 선택에 성공을 추구하자”라는 기치아래 영업의 적극적인 현장접목과 고객성공에 기여하고자 조직 변경을 하였다. 금번 조직변경에는 영업 1 본부에 윤영상 영업이사를 영업 2 본부에 나성수 영업이사를 전진 배치하여서 고객우선의 정책을 구현을 통한 고객의 만족이 최우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조경훈 박사를 M&D팀장으로 발령하여 시장의 흐름에 적극적인 접목을 추구하며, 신규 부서인 영업개발팀을 발족하여서 브랜드유통 및 신규 사업 개발 업무와 적극적인 영업지원(돈육유통, 계란유통, 우육유통 등)을 통한 사료판매 경쟁력 확보를 하는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대한제당(주) 무지개 사료는 고객의 성공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아래 금번 조직개편을 통한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현장중심의 회사로서 다가서고자 하며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

에서 단순한 고객보다는 경영동반자로서 우리의 고객이 영원히 한국 축산업계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국 BOCM PAULS사와의 기술제휴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고객의 한발 앞선 비전 제시와 역경 타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조직변경 내역

영업 1본부 영업이사 윤영상

영업 2본부 영업이사 나성수

M&D팀장 조정훈, 영업개발팀장 박수호

한우핵군육종연구회_원격제어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협찬



한우핵군육종연구회(회장 김상준)는 지난 1월 24일 회장 단회의를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주요 협의된 내용은 2007년도 총회 개최 및 사업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는 3월초에 한경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7월초에 심포지엄 및 선진농장 견학을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9월에는 축산박람회 시기에 경매행사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우핵군육종연구회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요구한 번식농가 프로그램이 완성됨에 따라 연구회 회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한우개량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협찬하였다.

이 원격제어프로그램은 농가에서 한우번식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전화를 하면 농가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직접 볼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농가는 한우핵군육종연구회에 가입을 유도하고 한우개량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동의 협조를 하자는 취지이다.

☞ 가입문의 : 011-281-4717 임종선 사무국장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1차 교육 성료



한우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박승술)는 1월 25일 정읍시 청소년수련원에서 회원농가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을 마쳤다.

이날 박승술 지부장은 금년 교육 계획, 개량사업, 능력평가대회의 일정을 알리고, 특히 암소의 초음파 검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외부강사로는 천하제 일사료 김영욱 부회장이 “한우브랜드를 위한 자세”를, 한국종축개량협회 김윤식 한우개량부장은 “정읍 한우고급육평가대회 결과 및 평가”를 하여 정읍에서 한우 사육에 대한 의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원 지리산검정희 제7차 정기총회 개최

본회 남원 지리산검정희는 2007.1.25일 남원시 소재 새만금 슷불갈비식당에서 제 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2006년도 예결산보고, 2007년도 예산의 승인, 회칙개정, 임원선출건등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 되었는데

주요 회칙개정건으로 기존에 없었던 부회장 1인을 두는 건과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의에 연속불참 2회 회원의 제명

그리고 검정희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개량(등록 및 선형심사)을 기피하는 농가는 제명키로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그리고 기존 조성된 회비의 일부를 회원들의 환원사업에 쓰는 건도 추가 상정되어 다음 월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회원들간의 일치로 보았다.

신규임원으로 회장 김종대씨, 부회장 최성권씨, 총무 양기동씨, 감사 이안기씨가 새로이 선임되었다.

전임 회장이었던 황형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임기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헌신적으로 따라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신임 김종대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부족하지만 회원들의 상호신뢰와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_번식성적을 향상시키는 LTF드레싱 제품출시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는 번식성적 향상을 통한 젖소의 연산성 증가를 목적으로 영국 BOCM



PAULS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번식성적을 향상시키는 LTF드레싱 제품을 지난해 10월 출시하였다.

이번 출시 제품은 BOCM PAULS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번식개선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며, 특히 최근 BOCM PAULS사는 번식에 대한 연구 및 제품의 출시를 통하여 영국에서 농장의 번식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무지개사료에서는 이번에 출시한 낙농 신제품인 LTF드레싱은 높은 에너지 함량과 난자와 호르몬의 품질개선과 간의 대사를 촉진하여 비유 초기 간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원활한 호르몬 대사를 돕고 초기배아손실을 감소시키게 설계하였으며, 또한, 발굽질병 예방과 항병력을 높여 유방염, 자궁염 등 질병을 최소화하여 번식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게 설계하였다고 한다. 이 제품의 급여시기는 분만 후부터 수정 후 1개월(임신후)까지로 급여량 두당 3kg라고 한다.

우성사료 축산경영인 포럼 실시

“세무상식 업그레이드로 축산경쟁력 강화”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축산업의 세무회계 실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지난 1월 25일 제1사업본부(논산공장) 주관



으로 전주 월드
컵경기장 컨벤
션홀에서 충청
지역과 호남지
역 축산경영인
8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세무교육에 앞서 김재형 양돈PM과 유호진 양계PM의 2007년도 축종별 시장전망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가늠해 보았으며 본 행사를 주관한 이진선 이사(제1사업본부장/논산공장)는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 일선에서 일하는 축산경영인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며 축산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강의를 담당한 송재현(대현회계법인)세무사는 “실제로 축산업의 전업화와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장의 규모화에 맞는 세무회계의 수준은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1000여 농가의 세무대행 실무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강의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에 참석한 한 농장주는 그 동안 농장의 생산성에만 치중해 왔으나 효과적인 절세방안 또한 농장의 수익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유익한 세미나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2007 사업전진대회 실시

“깨끗하고 행복한 축산세상 만들 것 결의”



우성사료가
(대표이사 지
평은) 2007년
사업전진대회
를 전국의 대리
점 사장단과 영

업조직 및 영업스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1~12일 양일간 대구 인터볼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실시했다.

“더 깨끗하게, 더 행복하게”란 주제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행사의 주제에 걸맞게 우성과 축산의 비전을 노랫말로 담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한 잔잔한 영상으로 공식행사의 막을 올렸다.

“더 깨끗하게, 더 행복하게”의 의미는 축산 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축산인과 종업원은 더욱 행복하게 하겠다는 우성사료의 경영이념으로 현재의 축산시장과 앞으로 나아갈 축산업의 비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평은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지난 한 해 동안 영업일선에서 노력한 대리점 사장단과 영업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내 사업 안정화를 통한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우성사료는 이미 2003년 베트남 동나이성에 우성비나를 설립해 안정화에 들어섰으며 양돈 사료 공장을 추가 증설중이며 또한 2005년 6월에는 중국 산둥성 덕주시에 해외법인 2호인 우성사료유한공사를 설립해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새롭게 영업본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오종균 상무이사의 2006년 사업성과 보고에 이은

2007년도 사업전략에서는 사양가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걸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한 축종별 전문화 조직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의 기능성 사료 공급과 서비스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성공적인 대리점 사업과 고객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개발을 통한 품질강화, 지속적인 기술투자확대, 이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와 세계적인 축산기업과의 기술 제휴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을 시사하였다.

축산연구소 출입언론인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지난 1월 11일 (목) 연구소 강당(수원)에서

연구소 출입언론인 및 부서별 홍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소 출입언론인 및 각 부서별 홍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07년 축산연구소 미션 및 주요 업무성과 소개와 금년도 각 부서별 중점(기획) 홍보 추진계획 발표 및 참석 언론인들과 소장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2007년이 축산연구소 19대 이상진 소장의 취임과 3기 책임운영기관이 시

작되는 첫 해로서 신입소장과 연구소 출입언론인과의 상견례를 겸해서 이루어졌다.

이상진 신입소장은 인사에서 “축산연구소는 매년 수많은 연구업적을 도출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축산연구소에서는 금년 홍보전문가를 채용 많은 홍보를 할 계획이며, 연구소 출입 언론인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간담회에서 이상진 소장은 축산연구소가 국가연구기관이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임의 미션을 충족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이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FTA와 관련하여 축산물의 근원적인 문제인 가격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인해 축산물 시장개방은 대세이나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고 또한 수입축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축산물 보호책 마련과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연구’ 지속 추진, ‘생산이력제 연구 강화’, ‘항생제 대체물질 연구’, ‘쇠고기 완전판별기술 개발’ 등 연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또 국내 토종 유전자원 발굴, 보존은 축산연구소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전자원시험장은 국가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연구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우유통감시단 활동 강화

수도권 감시요원 추가 배정... 활동일수도 늘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4일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사랑유통감시단 교육 및 운영협의회를 열고 2007년 한우유통감시단 활동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명이던 서울·수도권이 감시요원을 5명으로 1명 추가했으며, 기존 8개도에 배정된 유통감시단의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월 활동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실제 감시활동은 크게 강화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시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 운영협의회장으로 정호영 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선임했다.

정호영 협의회장은 “농가 스스로 유통질서를 바로잡아보겠다고 나선 것이 이젠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몸집이 커졌다. 올해는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 한우산업이 바로 서는데 우리 감시단이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우사랑 유통감시단의 시작은 한우협회 회원 농가들을 중심으로 수입생우의 농장에서부터 전 유통과정을 추적해 수입생우가 단 한 마리도 한우로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03년 현 문유상 김해축협장을 단장으로 한우유통감시단을 발족했으며 쇠고기의 둔갑판매 관행을 뿌리 뽑고 농가 스스로 나서 우리 한우를 제대로 팔리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우자조금의 출범과 함께 지난 2005년 9월 18일 농협 서울지역 본부에서 발대식을 갖고 현재

의 지역별 감시원을 둔 체계를 갖춘 유통감시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렇게 발전한 유통감시단은 지난해 경북, 강원, 수도권 등에서 펼쳐진 일제단속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둬 유통감시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고 이를 근거해 올해 감시단 활동이 더욱 강화됐다.

(주) 중앙 진테크 미국 ABS 사의

GMS 시스템 도입



지난해 11월부터 (주) 중앙 진테크사와 미국 ABS사 공동으로 한국의 젖소 개량을 위해 도입한 GMS 프로

그램이 많은 낙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수십여 목장에서 이미 실시하였다고 전하며 약 20개 이상의 농가에서 문의 및 교육과 실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 이라고 전했다.

본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장주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전하며, 시작단계부터 기초자료 조사(혈통 및 검정 기록 등)를 통한 현재목장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목장의 개량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풍부한 심사경험을 겸비한 김정구 GMS 관리이사의 심사를 통하여 개체의 체형까지도 파악되어 이 모든 조사된 자료를 미국 ABS사의 슈퍼컴퓨터에 축적된 자료와 연계하면 우군의 표현능력과 유전능력이 결합되어 최적의 종모우

를 찾아주는 선진 낙농프로그램인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본 GMS 프로그램 결과물은 최적의 종 모우선정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의 개량 방향 및 목표를 요약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해주고, 현재 근친현황, 혈통 중 가장 많은 종모우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근친 요약집, 유전적 생산성적 및 체형성적 보고서를 도식화해서 알려 주며, 각 개체별 혈통현황 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분석하여 알려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적 종모우 찾기 및 기간별 필요한 정액수량까지 파악되어 목장의 경영상태 개선과 정액 관리의 체계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 전했다.

동조물산(주), 2007년 1월 4일~8일 동조물산 해외 워크샵 다녀왔습니다.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조물산(주)와 지역 영업소 직원들과 중국 대리점 직원 총23명은 중국 상해에서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번 해외 워크샵에서는 앞으로 동조물산(주)가 나아가야 할 사업 방향과 고객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실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Welger사의 한국대리점 동조물산 DJCO 뿐만아니라, 중

국대리점 SINO-DJCO 직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동조물산(주)은 뜻깊은 자리에서 뜻있는 사람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직원 모두가 하나된 4박 5일 간의 워크샵을 통해 여러 번의 회의와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확실하게 결심하게 되었고, 직원들의 의지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였습니다. 해외 워크샵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층 더 가벼웠고, 모두의 가슴속에는 희망을 가득 담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낙농경영인 여러분들을 찾아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농가를 위하여 노력하는 대산공사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에서 회사의 이익 창출보다 축산농가를 위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대산공사(대표 최대식)를 찾아보았다.

대산공사는 1987년 창업한 이래 각종 축사 및 자동목걸이(스텐천)을 전문적으로 생산·시공 판매하는 회사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결 같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11월 23일 12월 3일까지 북한 평안남도 강동군 구빈리에 젖소농장 200평의 축사를 시공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에는 7,000여 평의 우사를 시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10,000평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한우조합(김인필 조합장) 축사 1,2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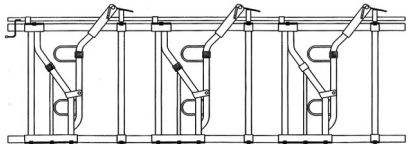
을 받주 받는 상태라고 밝히며, 축사내부 품질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최대식 대표는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북해도 국제박람회와 농기구박람회
회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일본으로 수출
을 하고 자동목걸이는 기존 설치 후 한 달도 되
지 않아 잠김장치 고장, 흔들거림, 떨어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사용연한을 높이기 위
하여 개발한 너비 4m 5두용 자동목걸이는 AS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밝히며 최소 내용
연수는 10년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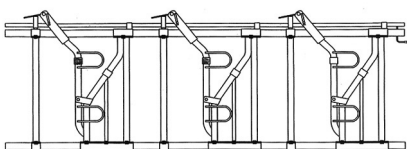
또한 축사환경에 맞춰 주문제작이 가능하며,
70 80% 소음이 감소하여 소에게 스트레스를 최
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삼각형 잠금장치를 강화
하여 소가 열 수 없게 배려하였으며, 자동목걸
이 위, 아래에 타원형의 유도막을 설치하여 자
동목걸이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송아지가 밑에 걸리는 것을 방지되도록 하
고있다. 이러한 기술은 농가를 위하여 개발하였
고, 많은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출
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6년에는 자동목걸
이 특허 출원 및 디자인 특허 출원했다고 한다

디자인출원 : 제 2006-0081374 호 / 특허출원
: 제 2006-0035783 호

[정면도]



[배면도]



aiak News NEWS 해외소식

일본, 낙농가 88% 유대 인하로 목장 경영 어려움 호소

일본 큐슈지방 낙농가 88%가 목장 경영에 제
일 어려움으로 원유 판매가격의 하락을 꼽았으
며, 70%의 농가는 생산 조정제 실시, 39%의 농
가는 자재가격의 상승을 답한 것으로 발표되었
다. 이같은 결과는 큐슈농림어업금융공사가 지
난해 관내 159개 낙농목장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로 낙농가들은 67%가 목장경영 여건
이 전년도에 비해 나빠졌으며, 72%농가는 소득
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생산조절제
에 대응하기 위해 45%의 농가가 경산우 도태,
44%농가는 원유를 폐기하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33%의 농가는 대체우 도입 유보, 장기 대응을
위해 비육사업을 겸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5 - 10년 목장경영
전망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가 53%인 반면 규모
확대도 38%로 나타나 경영 규모의 확대를 지향
하는 농가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일본농업신문〉

미국, 최고 외모점수 말소 생산 종모우 '더햄'

최근 미국내 홀스타인 2세 젖소중 가장 높은
외모점수를 받는 암소들은 아비 종모우가 쉐렉
싸이어사의 '7H5157 더햄'인 것으로 미국 홀스타
인협회가 발표하였다. 동 협회에 따르면 최근 외

모심사를 받은 2세우 중 고득점우 136두를 분석한 결과 이중 18두가 '더햄'의 딸소이고 그 다음은 '비 더블류 마살', '루벤', '베스트', '타이타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미국 홀스타인 암소중 외모점수 95점이상을 받은 소는 모두 32두로 이중 96점을 받은 소가 3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olstein World >

영국, 체다치즈 숙성과정 인터넷 생중계 화제

영국의 체다치즈 제조업체인 '웨스트 컨츄리 팜하우스'사가 자사 치즈 숙성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화제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텔레비전 스크린을 설치한 후 치즈 숙성 과정을 경과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서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 2만3천여명이 방문한 홈페이지는 일단 소비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이색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초에는 대학에 의뢰하여 영국내 특정지역의 젖소들이 그 지방 소 특유의 울음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를 일으킨바 있다.

<출처 Dairy Reporter >

미국, 1일 9천두 3회 착유하는 목장 건립

하루에 9천두의 젖소를 1일 3회 착유할 수 있는 최대 착유설비를 갖춘 목장이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웰드시에서 건립승인을 받았다. 현재 1

만1천200두의 젖소를 착유하고 있는 축주는 현재도 2월 35두 착유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이 착유장을 2월 80두 착유용으로 확장하여 '07년 6월부터 1일 70만파운드의 우유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목장 확장 계획은 인근 주민들의 악취와 파리에 대한 민원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출처 The Tribune >

미국, '06년도 5대 주요 낙농뉴스

미국 데어리 프로핏사가 선정한 '06년 미국 5대 주요 낙농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연방정부 원유유통명령제(FMO) 존폐논란 - 가격체계, 보조 범위, 혼합 유가제 등 전반에 대해 논란 증대 ②일종의 자조금인 '협력하여 협동하기(CWT)' 프로그램의 수출보조 지원 - 원유 100파운드당 10센트를 적립하여 목장 폐업과 수출지원을 통해 유대 40센트를 인상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③사료비 폭등 - 미국내 곡물 수출 증가와 특히 에탄올 수요증가에 따른 옥수수, 대두 가격이 지난해 9월 폭등하여 우유생산비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하락 ④ 미국내 우유생산량의 꾸준한 증가세 - 특히 캘리포니아주등 주요지역의 우유생산량이 1/4분기 5%, 2/4분기 2%, 10월 11월에도 사료비 인상에도 불과하고 젖소두수가 증가 ⑤ 유기농 및 성장 호르몬 무투여 우유의 수요 증대, 탈지분유와 유청의 해외 수요증대

<출처 Dairy Profit Weekly >